

지역 식품기업 판로개척 효과 '톡톡'

생진원, 엑스포 사후관리 지원사업 신설 참여기업 연중 마케팅 지원... 높은 재구매율·과급력 선배

지난해부터 발효식품엑스포 참여기업의 연중 마케팅 지원을 위해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신설한 엑스포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지역 식품기업의 판로개척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발효식품엑스포 참여기업의 역량강화와 연중 마케팅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후관리 지원사업(온라인 프로모션, 오프라인 프로모션, 시제품 제작, 디자인, 홍보 지원)을 신설했다.

또한 참여기업에 대상으로 온라인 프로모션과 시제품 제작, 디자인, 홍보 지원 사업의 대상 업체 선별을 완료하고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성남분당 AK백화점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전북과 함께하는 진짜 맛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된 프로모션에서는 '전북 우수발효식품 특별전'을 시행해 가격할인과 기념품 증정 이벤트를 통해 수도권 소비자와 백화점 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첫날 호기심에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자가 제품에 만족하여 다음날 다시 찾아오고, 입소문을 통해 다른 소비자가 찾아오는 높은 재구매율과 과급력

을 선보였다. 분당에 거주하는 주부 김옥진(45)씨는 "평범한 제품이라 생각하고 별 기대없이 호기심에 구매해 보았는데 가족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음날 다시 와서 지인들 선물용까지 몽땅 구매하게 됐다"며 "전북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왜 순창, 남원하는지 알게

됐다. 좋은 제품을 확인했으니 앞으로 택배거래를 통해 꾸준히 제품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당 AK백화점 관계자는 "여름철 휴가시즌은 백화점에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북 우수발효식품 프로모션이 매장 평균 매출대비 130% 정도 증가하고, 현지 소비자들에게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MOU 체결을 통한 전북 우수발효식품 프로모션을 전개하며 경쟁력 있는 다양한 전북 식품을 발굴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당 프로모션에 참가한 6개사 가운데 3개사(남원미꾸리추어탕·신규입점, 순창장박가정통식품·신규입점, 군산 아리올수산물·품목추가)가

입점을 위해 세부 협의에 들어갔다. 또한 현장 매출이외에도 현지 제품 홍보와 입소문을 통한 택배 주문 고객을 확보해 신규 판로개척 효과가 톡톡히 나타났다.

생진원 관계자는 "발효식품엑스포가 1회성 행사가 아니라 행사 개최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전복 식품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고, 판로개척, 시제품 제작, 디자인, 홍보 지원 등의 다양한 연중 사후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전북 식품산업 역량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5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인재용 기자



'쌀밥이 맛있는 집' 1호점 현판식 개최

전북농협, 덕진구 송천동 '고궁' 서

전북농협은 24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고궁'에서 '쌀밥이 맛있는 집' 1호점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형민 전북본부장, 농촌사랑봉사단, 고향주부모임, 농기주부모임 등 여러 관련기관이 참석했다.

'쌀밥이 맛있는 집' 사업은 우리나라 기본 식단인 쌀밥의 우수성을 알리고 쌀 소비 증가를 목적으로 농협과 농민신문사 공동으로 올 3월부터 실시했으며, '밥맛'이 좋은 식당을 발굴하고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번에 현판식을 가진 '고궁'은 전북의 대표적인 음식인 비빔밥 전문점으로 고품질 쌀을 사용해서 밥맛이 뛰어나고, 전국적인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다.

특히, 군산의 품질 좋은 쌀을 사

용해 현지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전북쌀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농협은 '쌀밥이 맛있는 집'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200개소를 발굴할 예정이다.

전국 농협지역본부와 지사무소를 통해 추천을 받아 농협과 농민신문사가 공동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식당에 대해서는 소개자료 발간, SNS 홍보 등 각종 지원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태호 본부장은 "쌀은 우리 농업 농촌의 기본인 만큼 농협은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소비촉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북에서는 올해 20여개소를 발굴해 전북 쌀 소비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저소득층·고령층, 고금리 비은행 대출에 '부담'

내수부진 지속될 경우 비은행권 여신 건전성 악영향 우려

저소득층과 고령층,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원의 '가계부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별로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는 가계대출에서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대부업체 등 비은행 금

융회사 비중이 55%에 달했다.

이는 전체 평균 34.2%보다 2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분위(하위 20~40%)도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이 41.8%나 됐다.

반면 소득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는 25.2%에 그쳤고, 4분위(상위 20~40%)는 28.7%로 낮았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고령층에서 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65세 이상이 43.2%로 전체 평균보다

9.0%포인트 높았고 55~64세도 41.4%로 40%를 넘었다. 이와 달리 35세 미만(21.5%)과 35~44세(27.8%)는 평균을 밑돌았다.

가구주 종사자 지위로 보면 임시·일용직은 비은행 대출 비중이 47.3%로 절반에 가까웠고 자영업자는 이 비율이 41.4%로 집계됐다. 상용직의 경우 25.7%로 낮은 편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보다 금리가 높다. 지난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신

규취급액 기준) 통계를 보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14.60%로 예금은행(3.47%)의 4.2배 수준이다.

신용협동조합(4.68%), 상호금융(3.97%), 새마을금고(3.94%)의 일반대출 금리도 은행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비은행 대출이 은행 대출보다 금리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등급이나 소득수준 변화로 차주의 채무부담이 일시에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수부진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여건 개선이 미흡할 경우 은행권보다 비은행권 여신 건전성에 더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 중소형 마트와 카드 제휴 이벤트 시행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 문제를 두고 소상공인과 카드사의 대립각이 선명해지는 가운데, 카드사와 영세 사업자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전북은행은 여름 휴가시즌을 맞이해 24일부터 도내 중소형 마트들과의 카드 제휴 이벤트를 시행한다.

JB카드 고객들은 50여개의 도내 마트에서 최저 3만원 이상 카드 결제시, 섬유 유연제, 주방 세제 등의 시은품을 현장에서 받아갈 수 있다.

행사에 대한 고객과 가맹점주의 호응이 좋아 지난 1년여간 꾸준히 제

기별로 연장 시행해왔으며, 본 행사를 통해 가맹점주는 전북은행 JB카드를 지어주는 전복은행 JB카드를 통해 행사 운영비용을 지원받을 뿐 아니라, JB카드 60만 고객에게 마트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갖게 된다.

전북은행 JB카드 마케팅 관계자는 "당행은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가량을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투자할 만큼, 은행 차원에서 상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JB카드, 고객, 영세 사업자 모두가 win-win하기를 바란다"라고 행사 기획 의도를 밝혔다.

한전 전북본부, 임실군 소방 119 체험 교육 실시

한국전력 전북본부는 '제36회 산업안전 보건 강조기간'을 맞아 지난 18일부터 2일간 임실 소방 119 안전센터 등 80명을 대상으로 임실군 소방 119 안전센터를 방문, 안전. 재난 체험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행사는 이제 막 사회 경력을 시작하는 신입 사원들에게 안전의식 확립과 실천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한전 관계자는 "평소 소화기, 화재대피 체험, 태풍·지진 체험, 차량 전복

체험, 4D 재난 영상체험 등 평소 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일상 생활 주변에서의 안전과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신입 사원은 효과를 묻는 질문에 "재난·안전 교육을 일방적 주입식으로만 접했었는데, 실제 재난의 가상 현실의 경험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해야 할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계옥